

장애인·유공자 통행료 감면,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

- 하이패스 차로에서 복잡한 지문인증 방식 대신 “일반 단말기”로 감면
-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서비스를 적용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함진규)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한다.
 -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,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,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“휴대전화 위치조회”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*을 도입(`22.11~)하였고,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.
 - * 하이패스 출구 통과 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탑승 확인 후 즉시 폐기
 -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~퇴계, 용인~서울, 서울~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된다.
-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며,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“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·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%p(`22.5월 47.6%→`23.5월 56.0%) 증가했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도로국 도로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한명희 (044-201-3875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원일웅 (044-201-3887) |
| 담당 부서 |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| 책임자 | 팀 장 | 이민욱 (054-811-4120) |
| | | 담당자 | 차 장 | 홍성호 (054-811-4127) |



□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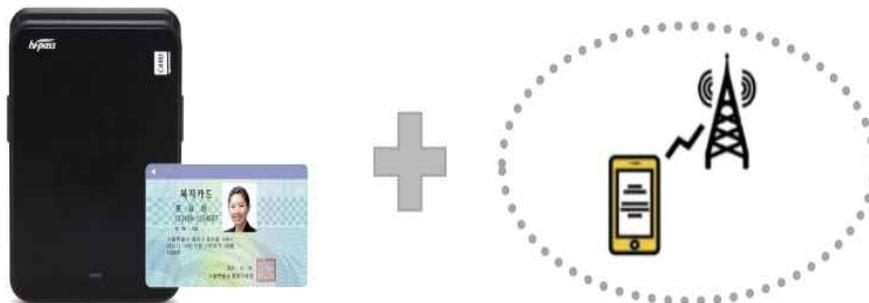
- (기존) 지문인식 단말기 구매(영업소·온라인) → 지문 등록(행정복지센터) → 이용 전 지문 인증(차량 내) → 지문 재인식(4시간마다, 재시동 시)

* 절단 등 지문이 없거나,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은 지문을 등록하고 차량에서 지문을 인증하는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는데 어려움



< 지문인증 방식 >

- (개선) 지문 인증 절차·방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문 인증 없이 '일반 하이패스 단말기'에 '통합복지카드' 삽입 방식으로 개선



<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기능 + 일반 하이패스 + 휴대폰 위치추적 >